

일주문

불교·유교, 고전번역 협력 추진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은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이동환)과 12월 20일 고전번역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더 프라미스 미얀마 돕기 사진전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 이사장 범등 스님은 12월 19일 서울 청담동 갤러리 엠에서 미얀마 난민 후원 사진전을 개최했다.

부산시철도역사에 불교문화재 전시관 첫 설치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12월 20일 부산교통공사와 1호선의 범어사역에서 '불교문화재 테마전시관'을 개관했다.

다문화 종교화합 강연
천대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12월 19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과 종교화합'을 주제로 강연했다.

신촌 봉사사 주지 일운 스님 재임
신촌 봉사사 주지 일운 스님은 제41대 봉사사 주지로 재임해 2012년 1월 1일 취임한다.

블레쉴 겨울 연꽃 어린이 캠프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12월 28-30일 양주 육지장에서 2011 겨울 연꽃 어린이 캠프를 개최한다. (02)738-7860

김지하 시인, 명사초청법회
김지하 시인은 2012년 1월 14일 오후 4시 동산불교대학에서 '변혁적 생명학, 서다림의 자책을 거처서'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02)732-1206

제10회 일민문화상 수상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연구실장은 12월 21일 일민문화재단과 동아일보사가 선정하는 제10회 일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쟁문화대상
소설가 정찬주 씨는 12월 13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화쟁문화시포럼(이사장 법산) 창립 2주년 기념법회에서 화쟁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불교언론인후원회 위원장 선출
변대용 불교TV이사는 한국불교언론인후원위원회(위원장 최승천)가 12월 15일 개최한 2011년도 결산총회에서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외문화재환수재단 설립 발의

〈문화가 답이다〉 펴낸 조윤선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이 일하고 싶은 의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올해도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이 선정됐다. 조 의원은 지난 해 조사에서도 1위였다. 조윤선 의원은 12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담은 〈문화가 답이다〉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문화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윤선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을 통해 정치에 몸담게 되면서 '리더십의 부재'를 실감했다. 후진국은 남을 따라해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모델만 찾으면 된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방할 대상이 없어 스스로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문화가 답이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윤선 의원은 '문화'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민간의 모든 영역은 문화로 소통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소통하는 소비자들은 곧 우리들의 유권자이고 국민입니다. 제가 문화를 정치 소통의 도구로 착안하게 된 것도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조 의원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문화는 정치고, 경제이며 외교고 복지이면서 동시에 교육이자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을 정리한 것이 〈문화가 답이다〉이다.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관심은 올해 6월 국회 최초로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법안은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만화진흥기금 조성, 저작권보호위원회 구성을 통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윤선 의원은 실제로도 만화 인턴을 채용하고, 학교 강연 및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시각자료로 만화를 활용하는 등 일상 속에서 만화 진흥 실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조 의원은 "만화나 소설 등의 원작이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 2·3차 저작물로 창작되면서 스토리 공모전도 생겨났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만화나 원작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편당 수 억짜리 드라마로 제작



문화유산 70%가 불교

불교문화에 많은 애정 있어

"모든 영역은 문화로 소통한다"

'자리'보다 '일' 중요하게 생각

되도 만화 작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작 몇 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윤선 의원은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정도로 현대 문화뿐 아니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에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12월 16일 강원도 오대산 사고와 월정사에서는 조선왕실의례반환 국민환영행사와 고유제가 마련됐다. 이번 환수는 1965년 한일협약으로 정부의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교계 주도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활발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이번 외규장각도서나 왕실의례 반환을 지켜보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의원의 올해 6월 '국외 문화재 환수재단'을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조 의원은 "문화재 반환은 관련국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다. 외국에 나가 있는 14만점의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환수가 가능한지를 전략적으로 접근, 관과 민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외 문화재 환수 재단이 설립되면 다방면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연구해 효과적인 환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조윤선 의원은 불교가 화합과 철학의 종교로 더 넓게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조 의원은 "불교는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 사적 영역에서는 수신의 철학으로 이어져 왔다. 불교가 종교를 넘어 생활 습관, 수신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다른 종교를 모두 아우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의원은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이다. 대변인 시절 조 의원은 아픈 논쟁은 하더라도, 미운 논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억박지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윤선 의원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언어 순화다. 변호사 시절부터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조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구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이 대변인 시절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장수할 수 있었다.

조윤선 의원은 언제나 '자리'보다 '일'을 하는지를 더욱 신경써왔다. 그녀는 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보다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마음이 있는 강자에게 끌려가게 보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하고 싶은 사람, 조윤선 의원이 좋은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윤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내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믿어주는 분들,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 나의 특장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계약업 경륜으로 한일 교류에 이바지”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초대 신도회장에 이희구 회장 취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지승)가 창립 35년 만에 처음으로 신도회를 창립, 초대 회장에 이희구 지오영그룹 회장(사진)을 추대했다.

이희구 초대신도회장은 국내 최대 제약품 유통그룹이자 토종기업인 지오영그룹 대표이사로 의료 보건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왔다.

이 회장은 1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영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동안 스님들이 중심이던 양국 불교교류에 재가자가 동참해 불자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한일불교문화교류를 증진함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이 회장은 경남 거창에서 육영사업을 하던 선친이 성철 스님과 많은 교류를 해 오며 어려서부터 불심을 다져왔다. 이 회장은 특히 해인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 회장은 "사업도 자비사상의 근원인 병고를 치유하는 제약업으로 생명의 존엄을 실현하는 의길로 한국제약업계의 협력과 발전을 다지는 소임을 다해 왔다"며 "신도회가 첫 걸음이지만 경륜을 바탕으로 불교문화교류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자와 최병국 국회의장직속 등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학과생들의 승무 공연에 이어 각계 축하 및 격려사 협의회장 지승 스님의 신도회장 임명식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복지전문가 양성할 터”

우호철 대불청 경기지구 회장

"청년포교는 더 이상 범당의 범회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실행활동은 근본으로 한 다양한 사회참여와 일거리 양산이 다각도로 갖춰져야만 청년포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회장 우호철, 이하 대불청 경기지구)가 12월 17일 불교사회교육원(원장 권경임)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 도모에 나섰다. 우호철 대불청 경기지구 회장(사진)은 12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사회교육원을 통해 단순한 실행단체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불교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사·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인턴 수강 신청 및 각종 학사 관리업무를 대행해주는 학습플래너로 활동한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전국 540여 곳에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개신교에 비해 불자 복지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호철 회장은 "본원에서는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끔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면 복지관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인터넷 교육 1년 과정을 거치며 사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회복지사·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부여된다. 수행자와 바쁜 직장인 누구나 쉽게 수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불교사회교육원의 학습과정은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 대학 부설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적은 학비로 강의를 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 회장은 "이제는 실행만으로 불교 포교에 전념할 수 없다. 불자들이 사회 복지사 자격 취득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때 불교는 더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호철 회장은 12월 14일 화성시 문화원장 선거에 당선돼 화성문화원장으로 선출됐다. 우 회장은 "용주사가 위치한 화성은 총, 효가 중심이 된 많은 문화유산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충효 사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향토문화를 고증·발굴하고, 용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예절관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www.bsec.kr (031)271-6777-8

2012학년도 신입·편입생 모집

교육원 인가의 개편된 교과목 교육 실시
사분율, 대승범망경, 선원정규, 불교윤리, 조계종법 등을 Smart Campus를 통한 on-line과 off-line으로 연찬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4단계 면제
정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승가교육의 모량!!!
한문불전, 대승불교, 초기불교, 선불교 등 Smart Campus를 통한 on-line강의와 off-line강의 병행
승가의 전통습의와 예경, 청규, 운력
정암사승가대학
소통의 철학, 우수, 유미사찰음식, 전자포교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교육
사회복지와 연계된 전문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문의
정암사승가대학
정암사승가대학원
www.chungamsa.org 054) 439-9511, 439-9313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2년 1월 5일 (목요일) 오후3시 (목탁지참)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현 공 편(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탱 등)
제 의식편(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사용영만,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필요에 따라 일부 범용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